

광양시민 목소리 ‘정책’으로... ‘생생 인터뷰’ 추진

지난해 시민 의견 바탕 성과 돌봄 어린이집 등 우수사례 오늘 1차 포스코 직원 대상 “올해 10회 추진 의견 수렴”

광양시가 시민들의 참여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생생 인터뷰’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8일 광양시에 따르면 ‘생생 인터뷰’는 기존 설문조사나 단순 의견 수렴 방식으로는 놓치기 쉬운 시민들의 현실적인 문제와 요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소통 창구다.

지난해 시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추진한 광양시의 정책들이 전남도 정책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만큼, 시는 올해도 정책 형성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늘리



광양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생생 인터뷰’를 추진한다.

광양시 제공

고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난해 광양시는 시민 의견을 바

탕으로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복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370건의 복지사업을 통합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고등학생 인터넷 강의 수강료 지

원,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운영 등을 통해 맞벌이 가정을 지원해 왔으며, 이 같은 정책들이 전남도 인구정책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시는 올해도 청년, 근로자, 창업자, 반려동물 보호자, 복지 대상자, 중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올해 인터뷰는 총 10회 진행된다. 먼저 19일 오후 7시 금호도서관 회의실에서 첫 번째 인터뷰가 진행되며, 간담회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신규직원 10명과 광양시 감동시대추진단 공직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의 주제는 ‘관외 전입 근로자의 정착 지원 및 청년 놀이문화 활성화’로, 참석자들은 주거 문제, 교통편의, 생활 인프라 개선, 지역 네트워크 형성 등 전 입 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논의할 예

정이다.

광양시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청년층이 바라는 광양의 모습과 놀이문화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함께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3월에는 ‘로컬 창업 관련 문제점 및 지원책’, 4월에는 ‘반려동물 생활 환경 개선 방안’을 주제로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에도 복지 신규 시책 발굴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해 시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승재 광양시감동시대추진단장은 “지난해 시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이 우수사례로 선정된 만큼 올해도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연중 10회의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확대... 체험형 눈길

총 39개 업체, 47개 품목 숲 프로그램·목재체험 등

광양시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을 통해 다양한 품목을 접수하고 최근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15개 품목을 답례품으로 추가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사라실 라벤더 샴푸 △마늘고추장 △재래된장 △도자기 접시·머그컵 △건강 생활용품 △매실 주방 세제 △드립백 패키지 △원두 패키지 △노각나무 식혜 △생강청 △생강편 △현미찰집 세트 △치유의 숲 프로그램 △목재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15개다.

이에 따라 광양시 답례품은 총 39개 업

체, 47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특히 이번 선정위원회에서는 광양 백운산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프로그램’과 ‘목재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체험형 답례품이 포함돼 기부자의 광양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 선정 결과는 광양 시청 홈페이지 (<https://gwangyang.go.kr>)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된 답례품은 선정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급업체 설명회와 고향사랑e음 등록 절차를 거쳐 이달 내 기부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광양-안영준 기자

가정용 LPG용기 ‘고무호스→금속배관’ 교체

광양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LPG용기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관내 40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스 시설은 2030년까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 용기 보호함 등 추가 안전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시는 가구당 29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희망가구는 광양시 신산업과로 방문 또는 우편(팩스, 메일)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0%인 2만9000원은 가구가 자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 (gwangyang.go.kr) 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광양시청 신산업과(061-797-2805)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시민정보화교육 27개 과정 운영... 디지털 역량 강화

광양시가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3월4일부터 ‘2025년 시민정보화교육’을 운영한다.

18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 4개 정보화교육장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광양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은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문서 작성(엑셀, 한글, 파워포인트) △사진·동영상 편집 △블로그·유튜브 활용 △SNS 활용 등 실생활에 유용한 27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 흐름에 맞춰 간단한 스마트폰 앱 만들기,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등을 새롭게 편성했다.

교육 신청은 인터넷 접속과 방문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3월 개강 과정의 경우 인터넷 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며, 방문 접수는 오는 28일 하루 동안 각 정보화교육장(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에서 가능하다.

과정별 모집 기간이 다르므로 광양시 누리집에서 상세 일정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광양-안영준 기자



지난 15일 광양시 광양읍 공직자들을 비롯한 사회단체 소속 130여명이 ‘클린데이’ 행사를 열고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광양시 제공

광양읍서 공직자·사회단체 ‘클린데이’ 개최

광양시는 최근 광양읍사무소에서 ‘클린데이’ 행사를 열고 깨끗한 광양읍 만들기 애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5일 진행된 행사에는 광양읍 총무과 소속 공직자를 비롯해 새마을봉사단체, 한마을봉사단체, 퍼플로타리클럽, 광양상공인회, 동백로타리클럽, 백운라이

온스클럽, 중앙로타리클럽, 광양로타리클럽 등 8개 사회단체에서 총 13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세풍마을, 광양읍 남중학교, 북초등학교 일원에서 청결 활동을 펼쳤으며, 무단투기 쓰레기가 쌓이기 쉬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두 개 구역으로 나눠 환

경정화 작업을 진행했다.

권희상 광양읍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사회단체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광양읍을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양읍사무소는 ‘클린데이’로 지정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사회단체와 협력해 정기적인 청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매화축제, ‘매화랑 2박 3일’ 참가자 모집

캠핑·축제체험·시티투어 등 28일까지 회당 40팀 선발

광양시가 제24회 광양매화축제와 함께 할 ‘매화랑 2박 3일’ 참가자를 모집한다.

18일 광양시에 따르면 ‘매화랑 2박 3일’은 체험형 축제프로그램으로, 광양시는 광양매화축제 기간(3월7일~9일, 14일~16일) 금천계곡야영장과 메아리휴양소 등을 중심으로 캠핑, 축제 체험, 시티투어

를 두루 엮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운영 규모는 회당 40팀으로 오는 28일까지 선착순 모집 중이다. 참가비는 팀당 10만원이며 텐트 및 음식 등은 개별 준비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유선(061-762-0797) 또는 광양시청 누리집 팝업창의 QR코드 내 구글 폼을 작성하면 된다.

매회 첫날 오후 2시 등록이 개시되며 캠핑사이트 구축 후에는 종각 전망대 감상, 마을 트래킹, 가족 캠핑 시간이 이어진

다.

둘째 날 주요 프로그램은 광양매화시티투어로 섬진강 벚길체험, 매실하이볼, 매실테라피 등 광양매화축제를 취향에 따라 즐기고 망덕포구, 배알도 일원까지 돌아볼 수 있다.

이어 버스킹, 장기자랑과 함께하는 캠프파이어, 두부·떡 만들기, 바비큐 등 체험과 함께 마지막 날은 섬진강의 아름다운 봄 풍경과 마을을 트래킹하고 오후 2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

광양-안영준 기자

